

경기

- 서울 제조업부문 수출둔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지속
 - 8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96.6(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6.8% 감소
- 서울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
 - 8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부문이 14.0% 증가하고 대형마트부문이 9.4% 증가
 - 판매액 증가의 원인으로는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단가상승 및 할인판매, 휴일증가에 따른 판매액 증가
-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5% 상승
 - 9월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4.5% 상승하였고 전도시 평균인 0.1%보다 높게 상승
 - 전월에 비하여 주류·담배, 의복·신발, 통신 부문은 보합, 교통, 교양·오락 부문 하락,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 및 수도·광열, 가구집기·가사용품, 보건의료 등 상승으로 전월대비 0.3% 상승

고용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감소
 - 9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9%p 증가한 61.7%로 남자는 73.4%, 여자는 50.7%임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9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8천명(-1.2%) 감소한 4,917천명이며, 전월대비로는 0.3%감소함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4천명(-0.5%), 여자는 45천명(-2.17%)으로 남자는 2,826천명, 여자는 2,091으로 각각 감소함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 9월 서울의 실업률은 3.7%로 전월동월대비 감소하였으며, 전국의 실업률인 3.0%에 비해 0.3% 높은 수준

부동산

- 8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8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8,45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3.7% 감소
 - 공공부문은 토지조성 및 공원공사, 신규 주택 및 점포공사 부문의 발주 증가
 - 민간부문은 공장 및 창고공사, 재건축재개발주택 공사부문의 발주 감소
- 9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
 - 서울의 강북지역 상승폭이 전월대비(0.2%) 다소 확대
 - 강북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3%, 강남지역은 0.1% 기록
- 9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전월보다 상승폭 확대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0.3% 상승으로 전월(0.2%)보다 상승폭 확대
 - 강북지역 주택전세가격은 0.4%, 강남지역은 0.1% 상승

금융

- 8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전월대비 증가
 - 8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76조 3,707억원 규모
- 8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406개로 전월보다 388개 감소
- 9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80개로 전월보다 7개 증가
- 서울시 전년동월대비 수입과 수출은 모두 증가세
 - 9월 서울의 수출은 27.8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2.2% 증가. 수출 최대품목은 반도체, 편직물, 고무제품 등의 순
 - 9월 서울의 수입은 80.0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53.3%의 증가율로 수출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남. 수입 1순위는 반도체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컴퓨터, 의류, 철강관 등의 순

| 생 · 산 |

8월 경기는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

■ 내수부진 및 수출둔화 등으로 부진

- 8월 중 산업생산은 내수부진 및 수출둔화 등으로 부진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부진하여 지난달보다 2.2% 감소
- 전년동월대비로는 조업일수 감소와 분규로 인하여 자동차 등은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통신, 반도체 및 부품 등에서 늘어 1.9% 증가, 조업일수 조정지수로는 4.3%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서비스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등에서 부진하여 지난달에 비해 1.2% 감소
- 전년동월대비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부진하였으나,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서 증가하여 1.6% 증가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08년 8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96.6(NSA, 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6.8% 감소
- 업종별로 보면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타제품, 기계장비, 금속가공, 의약품 등에서 감소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부문 감소, 반면 경공업부문 소폭 상승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3.9% 감소하였으나, 지난 달 보다 감소세 둔화됨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함
- 세부 업종별로 보면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는 증가한 반면, 기타제품, 기계장비, 금속가공, 의약품 등에서 감소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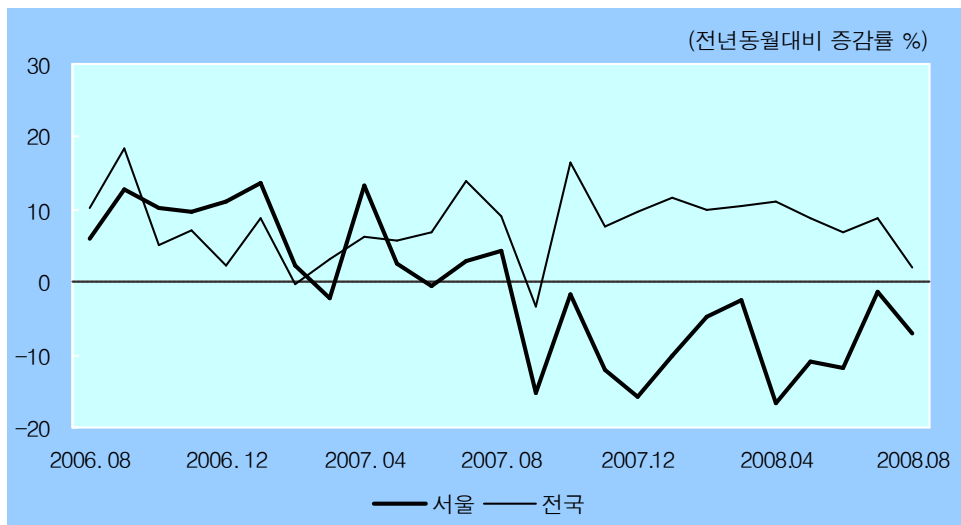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8월	4월	5월p	2008년			
				6월p	7월	8월	
전 년 동 월 비	전국	8.8 (0.7)	10.7 (1.0)	8.6 (-0.6)	6.6 (0.1)	8.6 (-0.4)	1.9 (-2.2)
	서울 (제조업)	4.4 (4.7)	-16.7 (-7.0)	-11.1 (-3.7)	-11.9 (-6.8)	-1.3 (11.9)	-7.1 (-1.6)
	중공업	8.5 (1.2)	-39.4 (-13.2)	-21.7 (0.5)	-23.7 (-2.0)	-18.7 (2.6)	-13.9 (6.0)
	경공업	2.0 (6.7)	1.1 (-3.2)	-4.5 (-6.2)	-3.7 (-9.9)	9.8 (17.7)	-3.0 (-6.3)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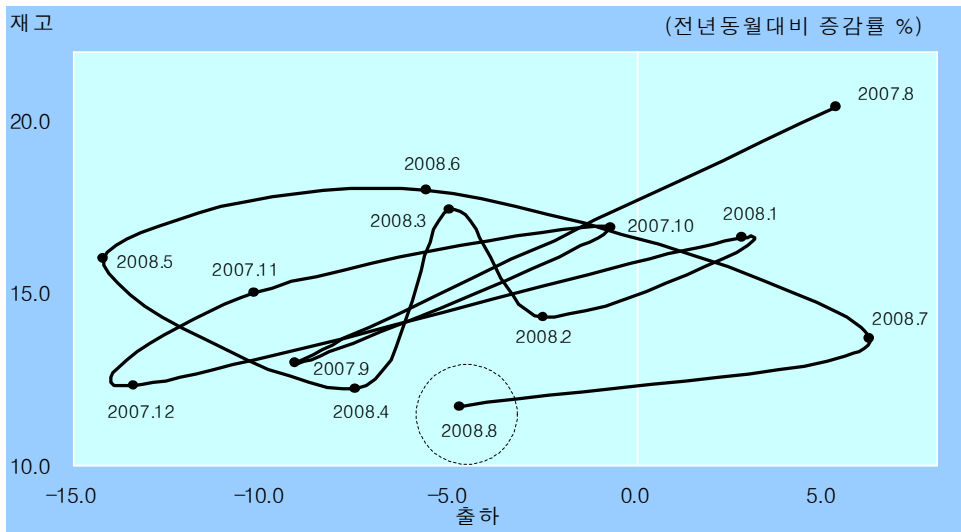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8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조정 단계

■ 서울지역의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68.5로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

-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한 반면,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식료품 등에서 증가
- 출하는 전년동월비 증가하고 재고는 전년동월비 감소하여 재고누증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증가

- 8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09.9%로 전월대비 3.3%p 감소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60.8%로 전월대비 3.36%p 감소함
-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한 반면 의복 및 모피, 식료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그리고 섬유제품 등에서 증가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14.0%p 감소한 161.1%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11.3%p 증가한 158.7%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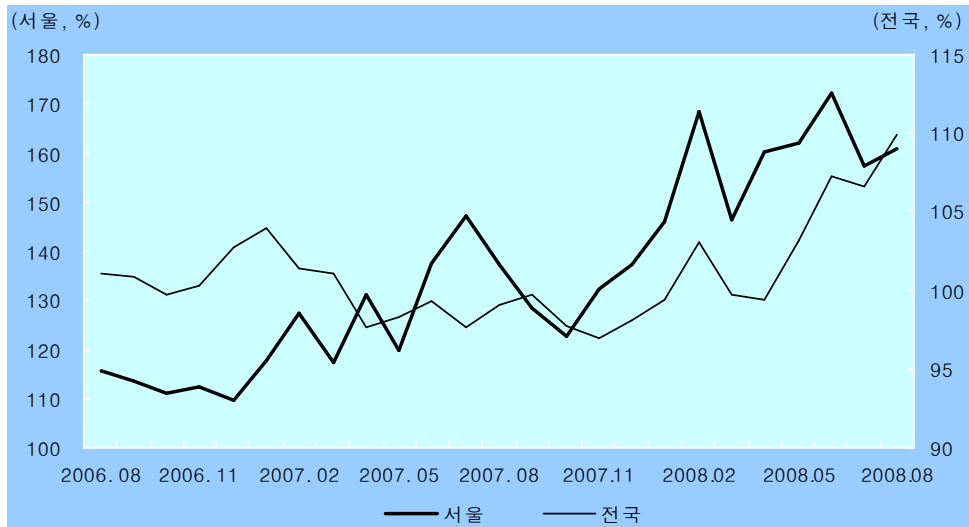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
		8월	4월	5월	6월	7월p	8월p	
재고율	전국	99.1	99.4	103.3	107.8	106.6	109.9	3.3
	서울	137.1	160.0	162.1	172.1	157.5	160.8	3.3
	중공업	135.3	179.9	159.5	170.8	175.1	161.1	-14.0
	경공업	139.1	148.8	161.0	171.4	147.4	158.7	11.3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8월 서울 대형소매점 유가상승에 따른 판매액 증가

■ 전국 대형소매점 전년동월대비 판매액 증가

-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에 비해 8.7%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차량용연료, 바내구재와 의류 및 신발 등 준내구재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 가전제품컴퓨터통신기기 등은 감소

■ 서울 대형소매점 국제금값 및 유가상승에 따른 판매액 증가

- 8월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은 1조2539억으로 전년동월대비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단가상승 및 할인판매, 휴일증가 등으로 인해 11.7%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3.5% 하락
- 백화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로 할인행사, 휴일 증가 등으로 14.0% 증가, 전월대비로는 국내 체감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의류, 신발류 및 금값상승에 따른 귀금속류 판매저조로 금월 6.1% 하락
- 대형마트는 전년동월대비로는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9.4%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귀금속, 의복 및 운동오락용품 판매 저조로 0.5%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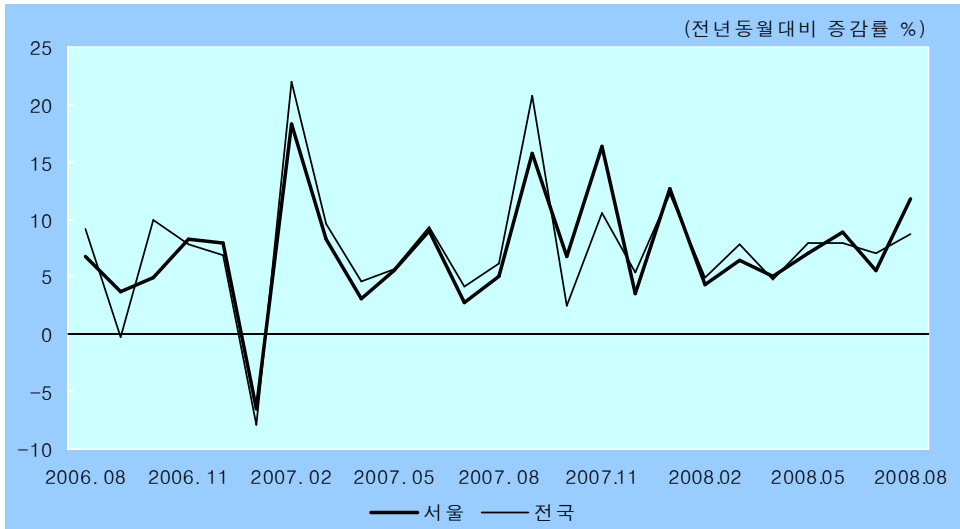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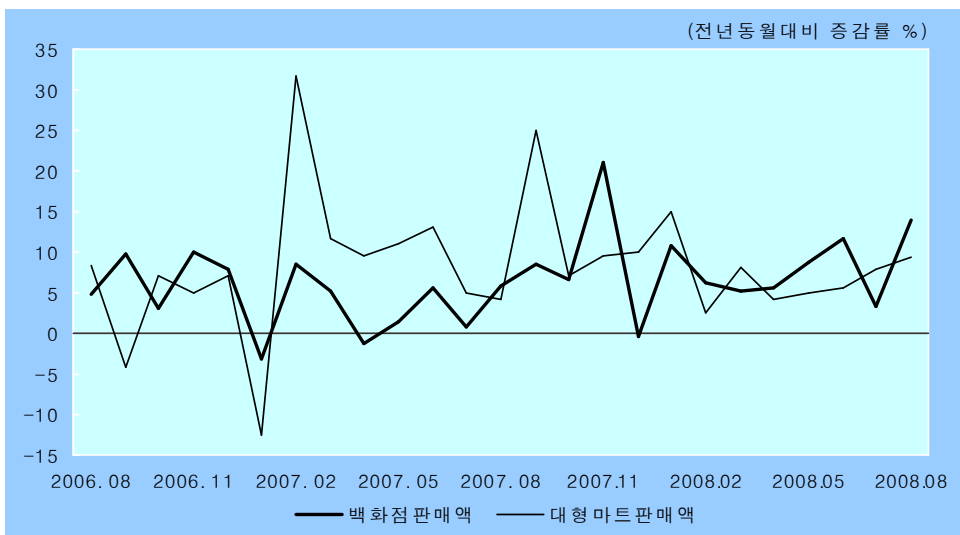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8월	4월	5월	6월	7월p	8월P
판매액	전국	3562.9 (6.2)	4017.2 (4.7)	4230.5 (8.0)	3954.0 (7.9)	4054.8 (7.1)	3873.2 (8.7)
	서울	1122.9 (5.0)	1376.7 (5.0)	1416.0 (7.1)	1333.8 (8.8)	1298.8 (5.5)	1253.9 (11.7)
	백화점	561.0 (5.8)	793.1 (5.6)	798.6 (8.8)	731.1 (11.6)	680.9 (3.4)	639.4 (14.0)
	대형마트 (할인점)	561.9 (4.2)	583.5 (4.1)	617.4 (4.9)	602.6 (5.6)	617.8 (7.9)	614.5 (9.4)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9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하락, 전년동월대비 5.1%, 전년동기대비 4.8% 상승
- 전월에 비하여 교통부문은 2.2%, 주거 및 수도·광열, 교양·오락은 각각 0.3% 하락하였으며, 주류·담배, 통신부문은 전월대비 보합, 기타잡비 2.0%, 식료품비주류음료 1.1% 등 나머지 부문은 전월대비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5.5% 상승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9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으로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4.5% 각각 상승
- 주요도시의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는 서울이 전도시 평균(0.1%)보다 높게 상승
- 인천, 경기도는 전도시 평균과 같으며, 제주는 보합,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은 전도시는 평균보다 하락
- 전월에 비하여 주류·담배, 의복·신발, 통신 부문은 보합이며, 교통, 교양·오락 부문은 하락하였으나,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 및 수도·광열, 가구·집기·가사용품, 보건의료 등 그 밖의 모든 부문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3% 상승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상승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전국:-0.3%), 전년동월대비 4.6%(전국:5.5%)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7%(전국:-1.1%), 전년동월대비 12.7%(전국: -11.9%) 각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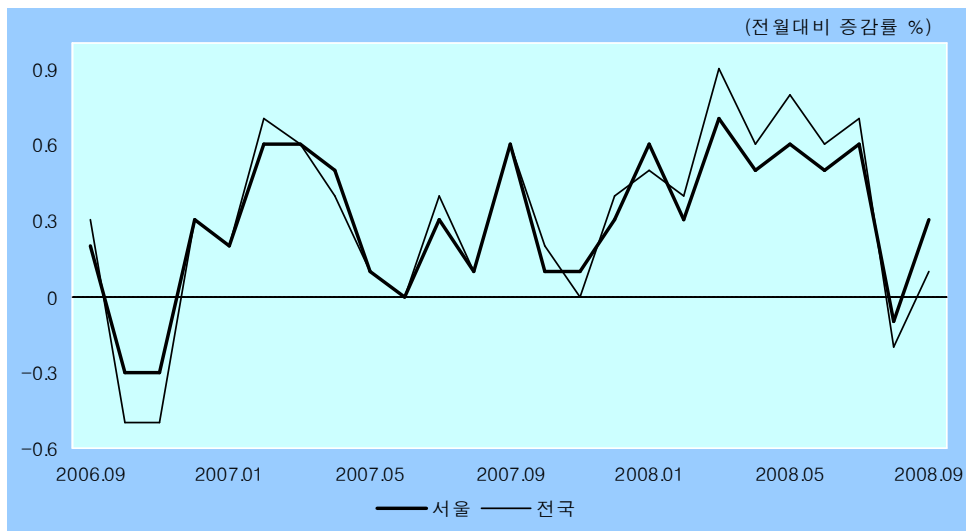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비	전국		0.6 (2.3)	0.6 (4.1)	0.8 (4.9)	0.6 (5.5)	0.7 (5.9)	-0.2 (5.6)	0.1 (5.1)
			서울		0.6 (2.6)	0.5 (3.5)	0.6 (4.1)	0.5 (4.6)	0.6 (5.0)
	상품 성질별	상품			1.3 (1.9)	0.8 (4.3)	1.5 (5.9)	0.9 (7.1)	1.4 (8.0)
			서비스	0.3 (3.0)	0.3 (3.1)	0.2 (3.1)	0.3 (3.4)	0.3 (3.5)	0.2 (3.6)
	생활물가			0.9 (3.2)	0.5 (4.1)	0.7 (4.7)	0.6 (5.5)	0.6 (5.7)	-0.3 (5.5)
	신선식품		8.9 (5.7)	-1.0 (-6.7)	-1.0 (-5.1)	-5.4 (-7.2)	3.5 (-7.5)	4.7 (-3.3)	-1.7 (-12.7)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9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2008년 9월 15세이상인구는 39,69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4천명(1.1%)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16천명(0.5%)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223천명으로 70천명(0.5%)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233천명으로 45천명(0.4%) 증가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각각 감소

- 9월중 15세 이상 인구는 8,26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2천명(0.9%)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10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5천명(-1.3%)이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월대비 1.4%p 감소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1.0 (0.5)	0.7 (1.6)	0.6 (0.8)	0.5 (0.1)	0.5 (-0.2)	0.7 (-1.2)	0.5 (0.3)
	서울	1.2 (0.5)	-0.1 (0.0)	-0.3 (0.3)	0.0 (-0.1)	-0.3 (0.2)	-0.1 (-0.5)	-1.3 (-0.7)
	남자	1.1 (-0.3)	-0.4 (0.2)	0.1 (0.7)	-0.3 (-0.4)	-0.4 (0.6)	-0.4 (-0.5)	-0.9 (-0.9)
	여자	1.4 (1.7)	0.4 (-0.2)	-0.8 (-0.4)	0.3 (0.4)	-0.2 (-0.3)	0.3 (-0.6)	-1.7 (-0.4)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2.0	62.0	62.4	62.5	62.3	61.5	61.6
	서울	63.1	62.4	62.6	62.5	62.6	62.2	61.7
	남자	74.8	74.0	74.5	74.1	74.5	74.1	73.4
	여자	52.0	51.5	51.3	51.5	51.3	50.9	50.7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 · 업 · 자 |

9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9월 취업자는 23,73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2천명(0.5%)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74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천명(0.4%) 증가하였고, 여자는 9,993천명으로 52천명(0.5%) 증가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이하에서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증가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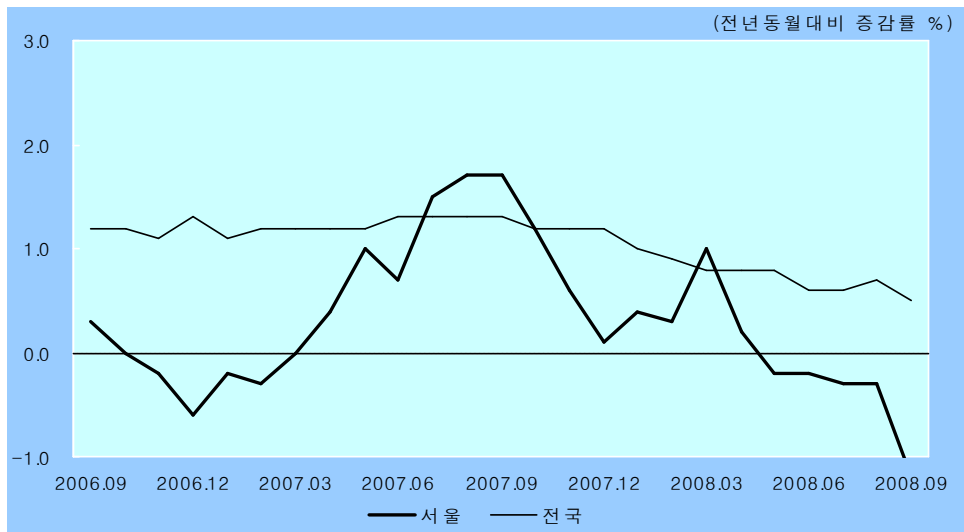
- 9월 취업자는 4,91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8천명(-1.2%)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2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명(-0.5%)감소, 여자는 2,09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천명(-2.1%)이 각각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도소매음식숙박업 14천명(1.0%), 건설업 0.3천명(0.1%)이 각각 증가하였고, 농림어업 14천명(-78.3%), 제조업 39천명(-5.5%), 전가운수·통신·금융업 14천명(-2.6%), 사업·개안·공공서비스업 6천명(-0.3%)이 각각 감소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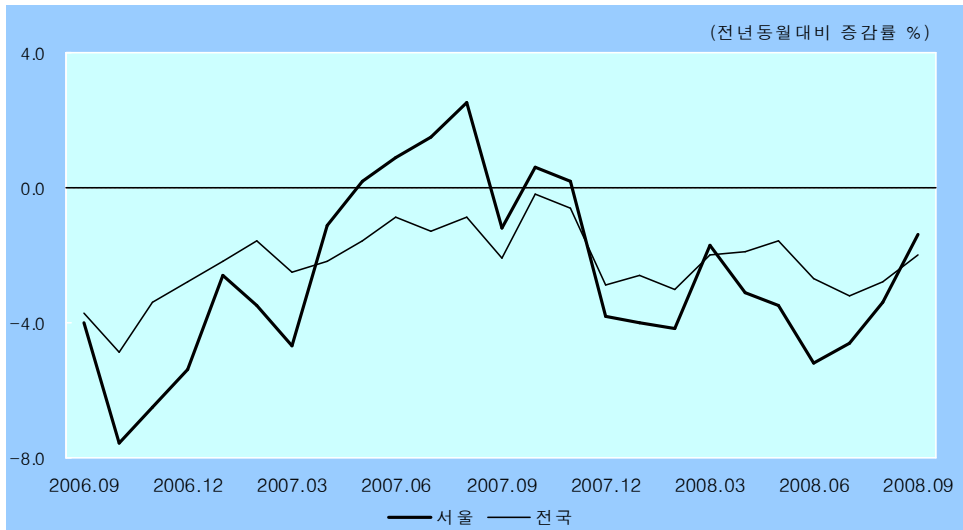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취업자	전국	1.3 (0.7)	0.8 (1.7)	0.8 (1.0)	0.6 (0.1)	0.6 (-0.2)	0.7 (-1.2)	0.5 (0.5)
	서울	1.7 (0.6)	0.2 (0.3)	-0.2 (0.4)	-0.2 (-0.2)	-0.3 (0.2)	-0.3 (-0.9)	-1.2 (-0.3)
	남자	1.1 (-0.3)	0.1 (0.3)	0.2 (1.1)	-0.1 (-0.4)	-0.1 (0.4)	-0.1 (-0.7)	-0.5 (-0.7)
	여자	2.5 (1.8)	0.3 (0.4)	-0.7 (-0.4)	-0.3 (0.2)	-0.6 (-0.1)	-0.7 (-1.1)	-2.1 (0.4)
청년층 취업자	전국	-2.1 (-2.5)	-1.9 (0.7)	-1.6 (1.5)	-2.7 (-1.2)	-3.2 (2.3)	-2.8 (-2.6)	-2.0 (-1.7)
	서울	-1.2 (-3.0)	-3.1 (1.0)	-3.5 (1.4)	-5.2 (-2.1)	-4.6 (2.3)	-3.4 (-1.1)	-1.4 (-0.9)
고령층 취업자	전국	2.3 (0.0)	1.3 (5.0)	-3.4 (1.4)	0.4 (-0.1)	1.8 (-0.9)	1.5 (-0.8)	2.1 (2.1)
	서울	0.1 (0.0)	-0.9 (0.4)	1.5 (3.4)	0.5 (-2.2)	-0.9 (0.0)	-0.4 (-0.1)	-3.4 (0.7)
	55-59세	5.9 (1.6)	5.6 (0.8)	6.3 (2.9)	9.5 (-0.3)	4.1 (-1.8)	5.2 (1.3)	3.2 (-0.3)
	60세 이상	14.5 (5.4)	-5.8 (0.1)	-2.2 (3.7)	-5.9 (-3.8)	-4.6 (1.5)	-4.7 (-1.4)	-8.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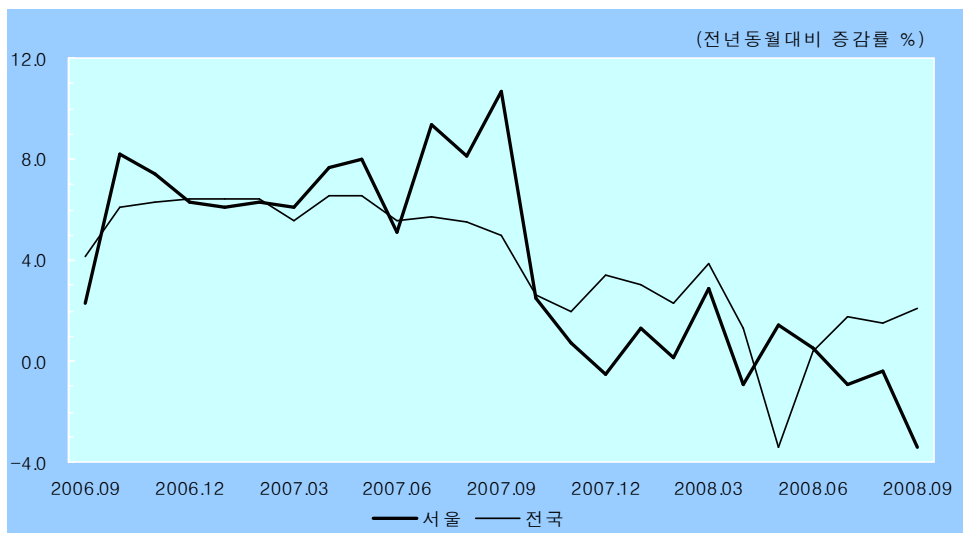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사무종사자는 증가

- 취업자를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33천명(4.3%), 서비스·판매종사자 1천명(0.0%)이 각각 증가하였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2천명(-71.3%),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67천명(-4.8%),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3천명(-0.8%)이 각각 감소하였음

■ 비임금근로자 감소,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 지속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236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68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57천명(-4.4%), 임금근로자는 2천명(0.0%)이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44천명(-4.0%), 무급가족종사자는 13천명(-7.1%)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4천명(1.8%), 일용근로자는 15천명(2.7%)이 각각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50천명(-4.1%)이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0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80천명(185.8%)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34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53천명(-24.0%)이 감소
- 36시간 미만 취업자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6천명(26.0%), 18-35시간 취업자는 934천명(226.1%)이 각각 증가
- 36시간 이상 취업자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71천명(-9.6%), 54시간이상 취업자는 781천명(-49.7%)이 각각 감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산업별	제조업	-4.8 (3.5)	-2.9 (0.4)	-3.0 (-0.7)	-4.7 (-2.1)	-6.3 (-2.1)	-9.7 (-5.9)	-5.5 (8.3)
	SOC 및 기타서비스업	2.6 (-0.2)	0.8 (0.3)	0.3 (0.6)	0.5 (0.1)	0.7 (0.6)	1.2 (-0.1)	-0.1 (-1.5)
	사업·개인·공공서비스	7.3 (-0.5)	1.0 (0.6)	0.1 (0.8)	-0.6 (1.0)	0.0 (-0.2)	-0.4 (-1.1)	-0.3 (-0.3)
	도소매·음식숙박	-4.7 (-0.9)	1.0 (-1.6)	1.0 (-0.4)	1.5 (0.3)	2.3 (2.5)	3.7 (0.8)	1.0 (-3.5)
	전기·운수·통신·금융	6.3 (0.3)	0.9 (1.4)	-0.1 (2.0)	1.9 (0.0)	-1.6 (-2.8)	1.0 (2.3)	-2.6 (-3.2)
	건설업	2.9 (2.8)	-1.1 (3.6)	-0.4 (0.8)	1.0 (-3.9)	1.3 (2.2)	0.9 (-0.9)	0.1 (1.9)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6.0 (0.4)	1.1 (-0.6)	1.3 (0.7)	-2.5 (0.0)	0.6 (1.8)	-0.5 (-1.0)	-0.8 (0.0)
	기능·기계작·조립·단순종사자	0.6 (0.8)	-3.8 (3.6)	-4.2 (0.8)	-2.6 (-1.3)	-5.4 (-1.2)	-4.2 (-0.3)	-4.8 (0.1)
	서비스·판매종사자	-1.9 (-0.2)	2.3 (-3.3)	1.5 (-0.6)	3.6 (-0.1)	1.9 (0.4)	2.3 (0.5)	0.0 (-2.4)
	사무종사자	-0.2 (0.4)	2.4 (2.3)	1.4 (0.8)	2.8 (1.3)	3.5 (-0.7)	2.6 (-3.5)	4.3 (2.1)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3.4 (1.1)	0.8 (1.5)	1.1 (1.2)	1.1 (-0.6)	0.9 (0.5)	0.0 (-2.2)	0.0 (1.1)
	비임금근로자	-2.9 (-0.8)	-1.5 (-2.9)	-3.8 (-1.9)	-3.7 (1.1)	-3.7 (-0.7)	-1.1 (3.0)	-4.4 (-4.1)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9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 9월 실업자는 72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0.5%)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8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2.1%) 증가하였고, 여자는 24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2.6%) 감소
-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자는 2.4%로 보합
- 계절조정 실업률은 3.1%로 전월대비 0.1%p 하락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30대, 40대, 50대에서 증가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감소
- 실업률은 30대, 40대, 50대에서 상승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하락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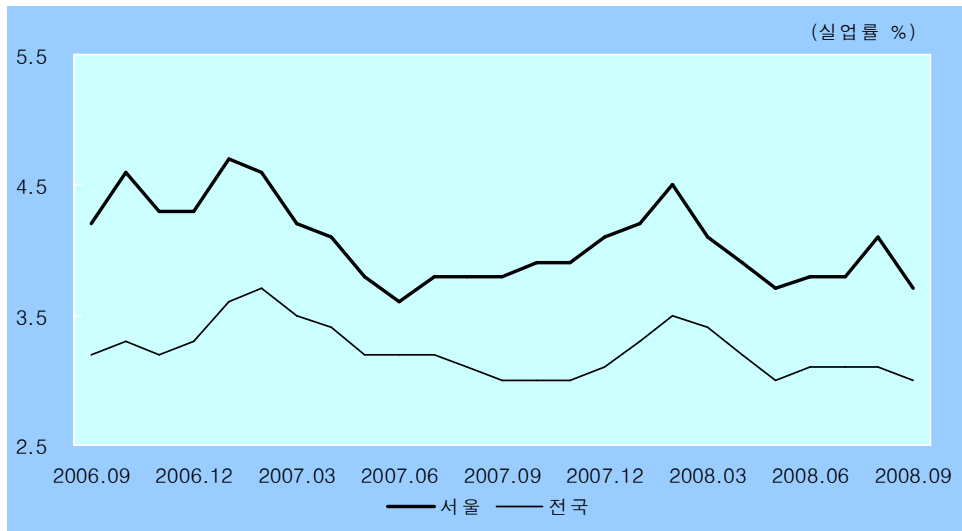
- 9월 실업자는 18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3.4%)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2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명(-10.1%)이 감소하였고, 여자는 66천명으로 7천명(12.2%)이 증가
-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1%로 전년동월대비 0.5%포인트 감소하였고, 여자는 3.1%로 0.4%포인트 증가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국		3.0	3.2	3.0	3.1	3.1	3.1	3.0
서울		3.8	3.9	3.7	3.8	3.8	4.1	3.7
성 별	남자	4.6	4.3	4.0	4.0	4.1	4.3	4.1
	여자	2.7	3.3	3.3	3.6	3.4	3.8	3.1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2008년 8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감소

■ 8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감소(전년동월 대비)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6,083,996백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6%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845,316백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3.7%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3.9%를 차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에서 공공부문은 전년동월대비 5.9% 감소하고, 민간부문에서는 66.1% 감소
- 공공부문은 토지조성 및 공원공사, 신규 주택 및 점포공사 부문의 발주 증가, 민간부문은 공장 및 창고공사, 재건축·재개발주택 공사부문의 발주 감소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감소(전년동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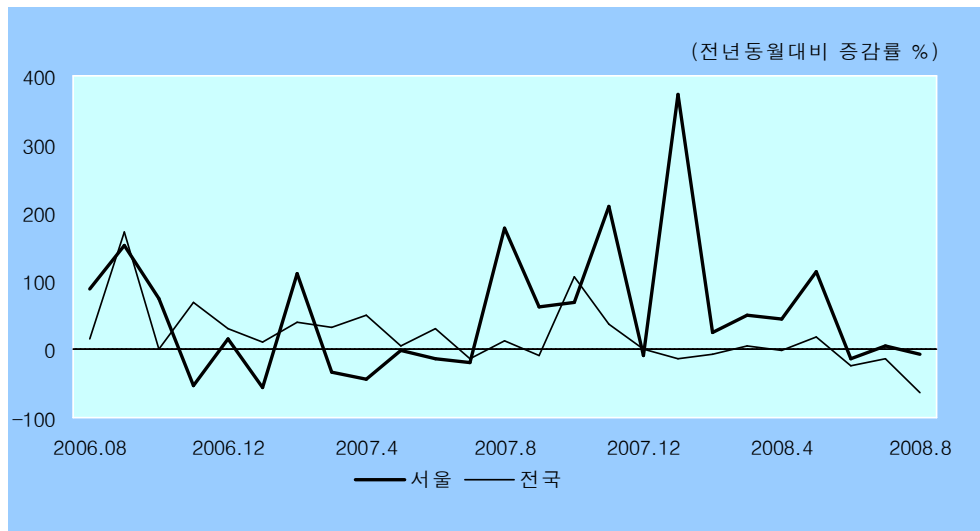
- 2008년 8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3,031.9천㎡로 전년동월 대비 21.1% 감소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중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27.0% 감소하고, 연립주택은 85.6% 감소, 아파트는 60.8% 감소. 전체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66.5% 감소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공업(433.3%)과 기타(33.2%)부문은 증가, 상업(-25.2%)과 문교 및 사회(-3.7%) 부문은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		6,586	7,645	8,431	9,115	5,274	6,084	-7.6	15.4
서울		2,325	1,423	2,731	1,914	940	845	-63.7	-10.1
발주 자별	공공	104	135	671	74	230	98	-5.9	-57.4
	민간	2,200	1,288	2,049	1,835	709	74	-66.1	-89.6
공종 별	건축	2,200	1,417	2,307	1,877	813	815	-63.0	0.2
	토목	118	5	423	27	122	29	-75.0	-76.2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서울		3,844.0	3,342.4	4,690.4	4,073.2	3,720.3	3,031.9	-21.1	-18.5
주거용	소계	290.5	95.1	262.7	1,839.0	975.7	97.3	-66.5	-90.0
	단독	14.8	15.4	13.1	10.0	15.9	10.8	-27.0	-32.1
	연립	84.8	14.6	8.8	8.6	7.4	12.2	-85.6	64.9
	아파트	189.5	65.1	240.8	1,820.4	952.4	74.3	-60.8	-92.2
비주거용	소계	3,553.5	3,247.3	4,427.7	2,234.2	2,744.6	2,934.6	-17.4	6.9
	상업	2,998.2	2,368.5	3,764.0	1,707.8	1,740.0	2,242.7	-25.2	28.9
	공업	32.7	152.1	204.9	138.6	1.3	174.4	433.3	13315.4
	문교/사회	483.7	673.3	357.1	321.5	819.2	465.7	-3.7	-43.2
	기타	38.9	53.4	101.7	66.3	184.1	51.8	33.2	-71.9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9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 유지

■ 9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2%에 그침

- 9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거시경제여건 불안과 부동산정책 개편에 대한 관망세로 가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9월의 장기평균 상승률(0.6%)을 하회하는 0.2% 상승에 그침
- 지역별 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서울 강북지역(0.3%), 부산(0.4%) 등 일부지역의 상승폭이 다소 확대됨

■ 9월 서울 강북지역(0.3%)의 상승폭이 다소 확대

- 서울의 강북지역(0.3%)에서는 서대문구(0.9%)가 가재울 뉴타운 이주수요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북구(0.7%)가 미아동 일대 재개발 기대심리로 상승함
- 강남지역(0.1%)에서는 구로구(1.0%)가 뉴타운식 광역개발 호재로 전월에 비해 이어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금천구(0.6%)도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며 상승함
- 한편, 양천구(-0.3%)는 경기침체 및 금리상승에 따른 불안 심리로 관망세가 지속되며 하락하였고, 강동구(-0.3%)는 잠실 등 인근지역 입주물량 증가로 하락폭이 확대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7.12=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9월		8월	9월	
전국	99.3		104.1	104.3	5.0
서울	98.8		106.8	107.0	8.3
아파트	99.3		106.1	106.1	6.8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7.8	109.7	110.0	12.5
	강남	99.7	103.8	103.9	4.2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서대문구, 강북구, 광진구

- 강북 지역은 전월에 비해 주택매매가격이 0.3%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확대(전월 0.2% 상승)
- 강북(0.3%)에서는 서대문구(0.9%)가 가재울 뉴타운 이주수요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북구(0.7%)는 미아동 일대 재개발 기대심리로 상승
- 그 밖에도 광진구(0.5%), 은평구(0.4%)는 강북 지역 평균 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반면 중랑구(0.2%), 성북구(0.1%), 용산구(0.1%)는 강북 지역 평균을 하회하는 상승률을 보였음
- 노원구와 성동구는 매매가격 변동이 없었음(상승률 0.0%)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 강남 지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상승폭이 둔화됨(전월 0.2%)
- 강남지역(0.1%)에서는 구로구(1.0%)가 뉴타운식 광역개발 호재로 전월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금천구(0.6%)도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며 상승함
- 양천구(-0.3%)는 경기침체 및 금리상승에 따른 불안 심리로 관망세가 지속되며 하락하였고, 강동구(-0.3%)는 잠실 등 인근지역 입주물량 증가로 하락폭이 확대됨
- 또한 강서구(0.5%)와 관악구(0.3%)도 강남지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영등포구는 매매가격 변동이 없었음(상승률 0.0%)

■ 9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보다 하락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9월 26일 기준)은 1,826만원으로 전월(1,832만원)보다 하락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423만원), 서초구(2,690만원), 용산구(2,559만원), 송파구(2,437만원), 양천구(2,006만원), 광진구(1,869만원), 강동구(1,829만원)로 나타났음
- 금천구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6월에 1,006만원에 도달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긴데 이어 7월에는 1,020만원, 8월에는 1,026만원, 9월에는 1,031만원을 기록하여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9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보다 상승폭 확대

■ 9월 기준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보다 상승폭 확대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0.4% 상승으로 조사된 가운데 전월(0.2%)에 비해서는 거래가 다소 활발해졌으나 경기침체 우려감으로 예년에 비해서 한산한 모습을 보임
- 수도권(0.4%), 광역시(0.5%), 기타지방(0.5%)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인천(1.3%)과 충남(0.9%)이 전월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보임
- 전세가격 증감률의 장기평균 추이를 보면 이사철인 9월은 1.2% 상승으로 나타났으나 올해는 0.4% 상승으로 장기평균을 크게 하회함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각각 0.3% 상승, 연립주택이 0.6% 상승하며 모든 유형에서 상승폭이 확대됨
- 전국의 주택규모별 전세가격은 대형이 0.2%, 중형이 0.3%, 소형이 0.5% 상승하며 모든 유형에서 상승폭이 확대됨

■ 9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보다 상승폭 확대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0.3% 상승으로 전월(0.2%)보다 상승폭이 확대
- 강북지역(0.4%)에서는 용산구(1.0%)가 연립주택 수요 증가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도봉구(0.8%)가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가 동반상승 및 물량 부족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임
- 강남지역(0.1%)에서는 강서구(0.8%)가 주변 아파트 입주 마무리로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신혼부부 등 수요증가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구로구(0.8%)가 뉴타운식 광역개발에 따른 수요증가로 높은 상승률을 보임
- 반면, 입주물량이 풍부한 강동구(-0.6%)와 송파구(-0.5%)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강남구(-0.2%)와 서초구(-0.2%)도 하락함
- 아파트가 0.1%, 단독주택이 0.4%, 연립주택이 0.6% 상승하며 모든 유형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7.12=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9월	8월	9월	
전국	99.6	102.7	103.1	3.5
서울	99.4	103.8	104.1	4.7
아파트	100.1	102.1	102.2	2.1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5.1	105.6	6.9
	강남	102.4	102.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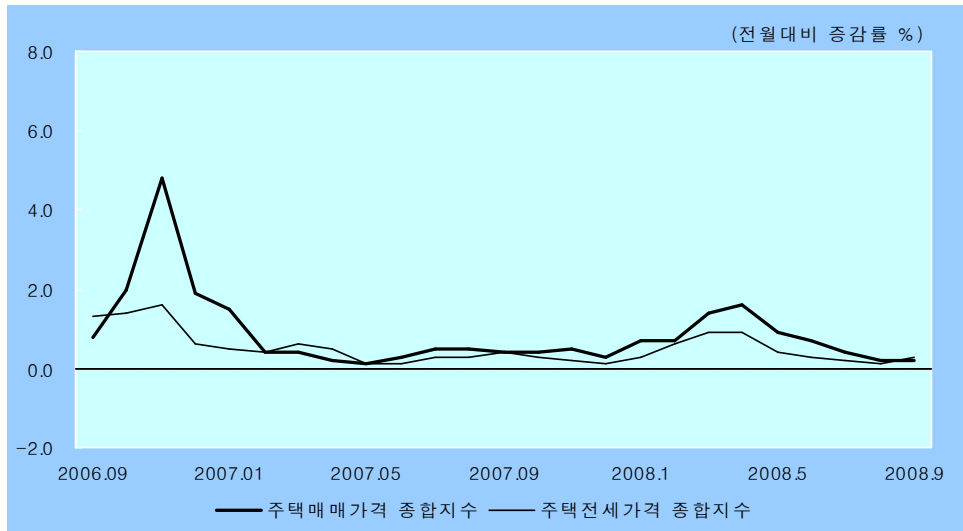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주요 상승지역은 용산구, 강북구,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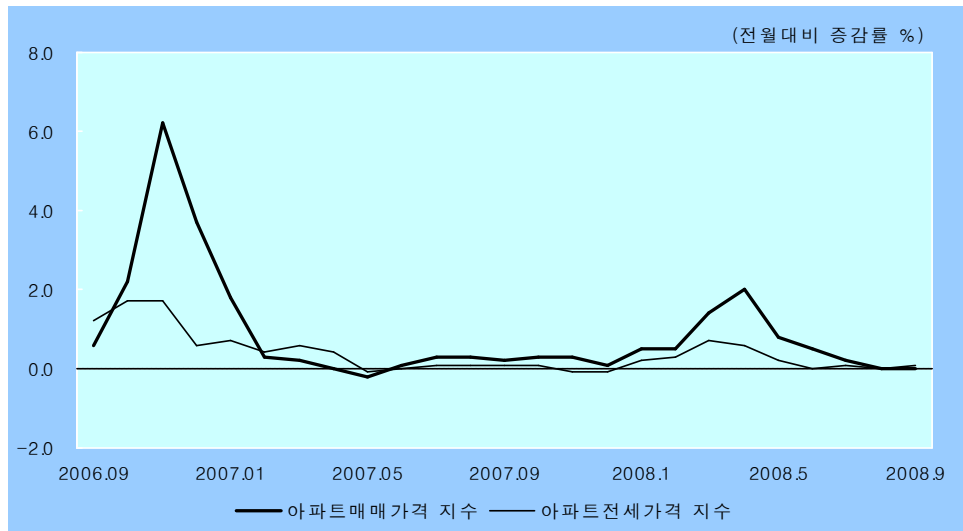
- 강북지역(0.4%)에서는 용산구(1.0%)가 연립주택 수요 증가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도봉구(0.8%)가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가 동반상승 및 물량 부족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임. 그 외에도 강북구(0.8%), 도봉구(0.8%)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강남지역(0.1%)에서는 강서구(0.8%)가 주변 아파트 입주 마무리로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신혼부부 등 수요증가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구로구(0.8%)가 뉴타운식 광역개발에 따른 수요증가로 높은 상승률을 보임. 그 외에 양천구(0.7%)도 크게 상승하였음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 유지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2008년 5월 39.8%, 2008년 6월 39.3%, 7월에는 39.2%, 8월에는 39.1%, 9월에는 38.9%로 하락세 지속
- 2008년 9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월에 비해 0.2% 하락
- 서울은 전국 평균 52.5%보다 13.6%p 낮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전국과의 격차(1월: 12.0%p, 2월: 12.1%p, 3월: 12.4%p, 4월: 13.1%p, 5월: 13.3%p, 6월: 13.5%p, 7월: 13.4%p, 8월: 13.4%p) 폭이 지난달에 비해 다소 확대되었음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1.7%, 강남 36.6%로 9월에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5.1%p이며,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다시 소폭 확대됨(3월: 8.7%p, 4월: 7.1%p, 5월: 6.4%p, 6월: 5.7%p, 7월: 5.1%p, 8월: 5.0%p)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큰 폭의 등락

금리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큰 폭의 등락을 보임
 - 9월 중 국고채(3년)유통수익률은 환율 급등 등의 상승요인과 국내외 경기둔화 확대 전망 등의 하락요인이 교차하는 가운데 8월말 수준을 중심으로 큰 폭의 등락을 보임
- CD(91일) 유통수익률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
 - 9월 중 CD(91일) 유통수익률은 8.14일 이후 5.79% 수준을 유지하다가 9월 하순 이후 은행채 금리 급등이 CD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승
- 9월 기준 장·단기 금리차 마이너스로 역전 후 폭이 크게 확대됨
 - 9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0.09%p로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이 감소한데 비해 CD 유통수익률은 상승함으로써 장·단기 금리차가 지난달 마이너스로 역전된데 이어 더 크게 확대됨
 - 이는 최근의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른 단기 금리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주가

- 9월 기준 KOSPI 지수 연중 최저치로 하락
 - KOSPI 지수는 리먼사태(9.15일)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면서 연중 최저수준(1,359p, 10.6일)으로 하락 (7월말 1,595p → 8월말 1,474p → 9.16일 1,388p → 10.7일 1,366p)
- 9월중 외국인 투자자는 대규모 순매도 지속
 -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전월과 비슷한 규모로 순매도 지속
 - 기관투자자는 연기금(3.2조원)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지속

- 외 국 인: 7월 -5.1조원 → 8월 -3.1조원 → 9월 -3.0조원
- 기관투자자: 7월 +4.4조원 → 8월 +2.6조원 → 9월 +2.8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률
		9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금 리	국고채(3년)	5.46	5.46	5.9	5.80	5.77	5.74	-0.52
	CD(91일물)	5.35	5.36	5.37	5.68	5.79	5.83	0.69
	콜금리(1일)	4.98	4.97	4.95	4.98	5.22	5.22	0.00
	장단기 금리차 ¹⁾	0.11	0.42	0.53	0.12	-0.02	-0.09	350.00
주 가	KOSPI	1,946.50	1,846.80	1,758.17	1,569.60	1,537.54	1,446.10	-5.95
	KOSDAQ	794.6	649.5	619.33	536.92	507.14	444.16	-12.42
환율 (₩/US\$)		915.1	1,038.20	1,031.07	1018.18	1047.11	1136.64	8.55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9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 전월보다 축소

-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보다 소폭 축소
(8월 +2.2조원 → 9월 +2.1조원)
-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보다 소폭 증가함. 그러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을 감안
할 경우 지난 7월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추석 상여금 지급 등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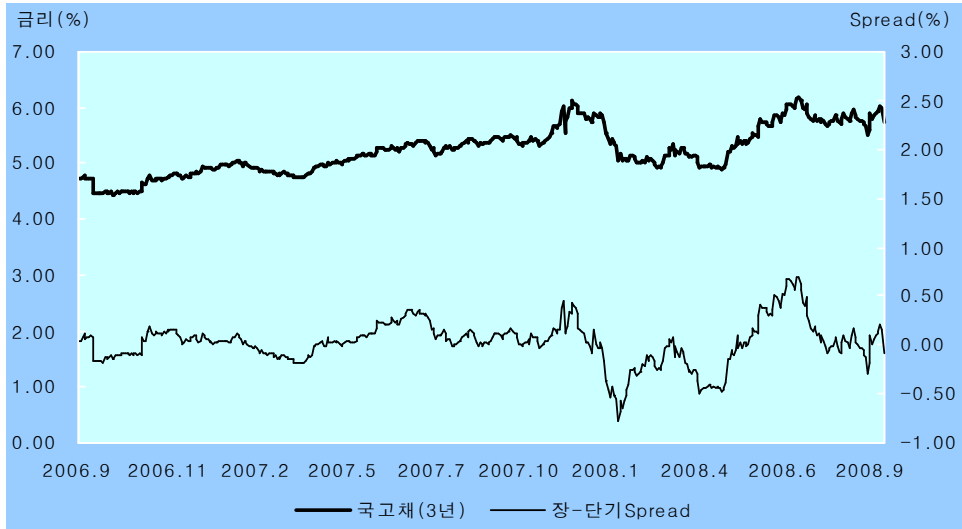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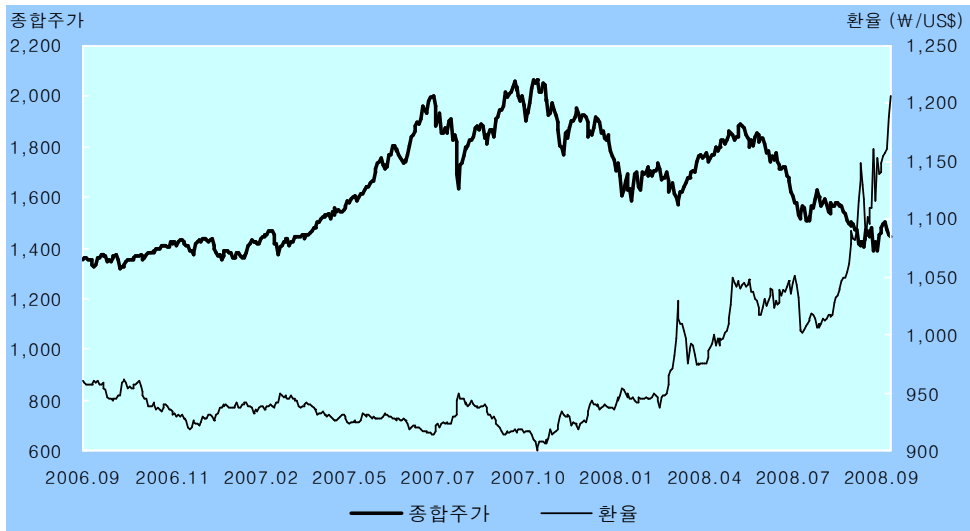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월말잔액		
							2008년		전월대비 증감률
	연중	5월	6월	7월	8월	9월	8월	9월	
가계대출 ¹⁾	17.8	2.7	3.1	2.5	2.2	2.1	381.4	383.6	0.58
주택담보대출 ²⁾	4.6	1.5	1.3	2.4	1.0	1.7	232.9	234.6	0.73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3	1.2	1.8	0	1.2	0.5	146.5	147.0	0.34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8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전월대비 증가

- 8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169조 3,846억원으로, 전월대비 11조 7,266억원 증가
- 8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76조 3,707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5조 5,752억원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액
		8월	5월	6월	7월	8월	
전 국	예금은행	764,660.6	858,336.1	870,377.1	883,185.6	891,376.3	8,190.7
	비은행기관	243,017.2	268,482.0	268,896.4	274,472.4	278,008.3	3,535.9
	합계	1,007,677.8	1,126,818.1	1,139,273.5	1,157,658.0	1,169,384.6	11,726.6
서 울	예금은행	319,306.4	371,719.0	378,204.3	385,865.6	390,593.6	4,728.0
	비은행기관	75,718.3	84,093.6	81,900.3	84,929.9	85,777.1	847.2
	합계	395,024.7	455,812.6	460,104.6	470,795.5	476,370.7	5,575.2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8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소폭 하락

- 서울의 8월 중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7월보다 0.2%p 하락한 61.2%를 기록함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은 연속적인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전월보다 1.0%p 하락한 88.5%를 기록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
	8월	5월	6월	7월	8월	
전 국	86.4	87.8	88.3	89.5	88.5	-1.0
서 울	57.1	59.9	60.4	61.4	61.2	-0.2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업·동·향 |

8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대폭 감소

■ 전국 신설법인 수 3개월 만에 감소

- 8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3,713개로 전월에 비해서는 3개월만에 감소(-25.8%)하였으며, 전년동월비로도 1개월만에 감소(-13.6%)하였음
- 이는 8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5.00% → 5.25%)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증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창업초기비용 증가와 7월 소비자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로 상승(5.9%) 상승하여 소비 위축 등에 기인된 것으로 추정됨

■ 서울 전월대비 신설법인 대폭 감소

- 8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406개로 전월대비 21.6%(388개) 감소하였음

■ 서울 모든 업종에서 신설법인 수 감소

- 모든 업종에서 신설법인 수가 감소하였으며 전월대비 서비스업은 22.6%(322개), 제조업은 16.7%(28개), 건설 및 설비업은 21.7%(34개) 감소하였음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8월	5월	6월	7월	8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298	4,113	4,662	5,006	3,713	-1,293	-25.8	-585	-13.6
서울	1,654	1,487	1,626	1,794	1,406	-388	-21.6	-248	-15.0
서비스업	1,344	1,212	1,279	1,466	1,134	-332	-22.6	-210	-15.6
제조업	156	128	197	168	140	-28	-16.7	-16	-10.3
건설 및 설비업	150	143	149	157	123	-34	-21.7	-27	-18.0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보다 감소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9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조정후)은 0.02%로 전월과 동일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203개로, 전월(178개) 보다 25개 증가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보다 감소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 0.02% 보다 0.01%p 감소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80개로 전월보다 7개 증가하였으며, 지방도 105개에서 123개로 전월보다 18개 증가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2개 감소한 반면, 제조업, 건설업은 각각 16개, 14개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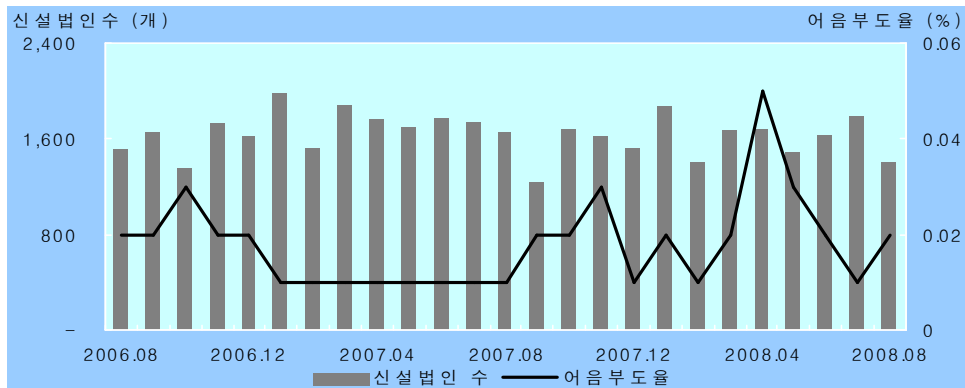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9월	6월	7월	8월	9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3	0.02	0.02	0.02	0	0.0	0	0.0
부도업체 수	138	191	209	178	203	25	14.0	65	47.1
서울 어음부도율	0.02	0.02	0.01	0.02	0.01	-0.01	-50.0	0	-50.0
부도업체 수	52	63	80	73	80	7	9.6	28	53.8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자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소상공인 보증 비중 감소

■ 건당평균금액의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9월중 4,158건, 69,917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는 3.4%감소하고, 금액은 14.8% 증가함
- 1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의 감소 등으로 신용보증 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일반 보증의 지속적인 수요 증대로 인하여 전월대비 금액이 증가하여 건당평균금액이 증가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9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1,223	3,109	5,438	5,260	4,304	4,158	-146	-3.4	2,935	240
금액	21,473	53,541	79,027	69,452	60,928	69,917	8,989	14.8	48,444	226
건당평균금액	17.6	17.2	14.5	13.2	14.2	16.8	2.6	18.3	-0.8	-4.5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전월수준의 업종비율 유지

- 9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서비스업의 비중(금액기준)이 전월보다 1.4%p 증가하여 18.9%를 나타내었고 기타 부문은 모두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284	1,540	972	859	503	4,158
비율	6.8	37.0	23.4	20.7	12.1	100
금액	7,236	25,599	13,915	13,247	9,920	69,917
비율	10.4	36.6	19.9	18.9	14.2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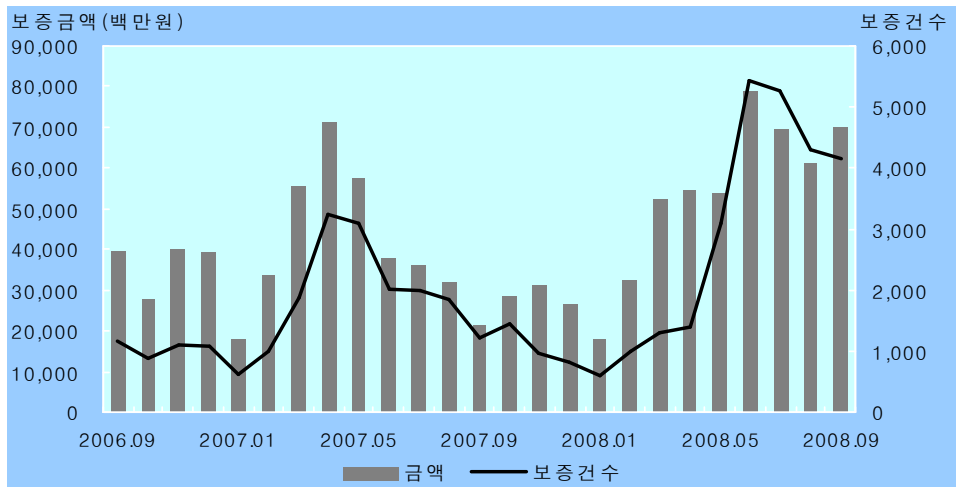
-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의 시행과 함께 증가하던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2개월 연속 감소하여 85.7%를 나타냄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8.07	2008.08	2008.09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5,133	4,175	4,000	-175
	비율	97.6	97.0	96.2	-0.8
	금액	64,806	54,377	59,937	5,560
	비율	93.3	89.3	85.7	-3.6
소기업	건수	108	111	115	4
	비율	2.0	2.6	2.8	0.2
	금액	3,617	5,128	6,606	1,478
	비율	5.2	8.4	9.5	1.1
중기업	건수	19	18	43	25
	비율	0.4	0.4	1.0	0.6
	금액	1,029	1,423	3,374	1,951
	비율	1.5	2.3	4.8	2.5
합계	건수	5,260	4,304	4,158	-146
	비율	100	100	100	0
	금액	69,452	60,928	69,917	8,989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전국 전년동월대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세

- 9월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8.2% 증가한 375.9억달러, 수입은 45.8% 증가한 396.5억달러를 기록
- 수출의 경우, 석유제품, 중화학공업품, 경공업품이 증가하여 전체 수출액이 전년동월 대비 28.2% 증가
- 선박, 석유제품이 전체적인 수출증가세를 이끌고 있으나, 과거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는 감소세

■ 전국 수입 중 원자재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수입의 경우 원자재, 소비자재, 자본재가 증가하여 전체 수입액이 전년동월 대비 45.8% 증가
- 원자재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원유 등 연료와 철강재, 광물의 급증으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 9월 기준 서울 수출과 수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9월 서울의 수출은 27.8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2.2% 증가하였고, 수입은 80.0억달러로 53.3% 증가
- 전월대비 수출과 수입은 각각 8.3%, 0.3% 증가하여 수출의 증가폭이 수입보다 크게 나타났다

■ 9월 기준 수출과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반도체가 192,701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편직물, 컴퓨터, 고무제품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847,165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컴퓨터, 의류, 철강관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철강관 및 철강선이고 수입의 경우 LPG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9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9,324	39,389	37,323	41,093	36,789	37,591	8,267	28.2	802	2.2
	수입	27,194	38,469	37,756	43,029	40,601	39,650	12,456	45.8	-951	-2.3
서울	수출	2,103	2,985	2,696	3,113	2,567	2,780	677	32.2	213	8.3
	수입	5,224	7,724	7,146	8,348	7,986	8,009	2,785	53.3	23	0.3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7년 9월		2008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167,239	-6.6	192,701	15.2
2	편직물	151,559	-15.1	170,834	12.7
3	컴퓨터	73,453	-9.4	122,077	66.2
4	고무제품	87,527	-4.6	114,963	31.3
5	자동차부품	83,257	-7.4	114,482	37.5
6	합성수지	114,578	34.8	112,641	-1.7
7	의류	105,679	-27.6	98,102	-7.2
8	철강관및철강선	4,641	-9.1	93,129	1906.6
9	자동차	44,178	13.5	80,988	83.3
10	무선통신기기	79,957	-8.0	80,641	0.9
	합계	2,102,856	-7.8	2,779,597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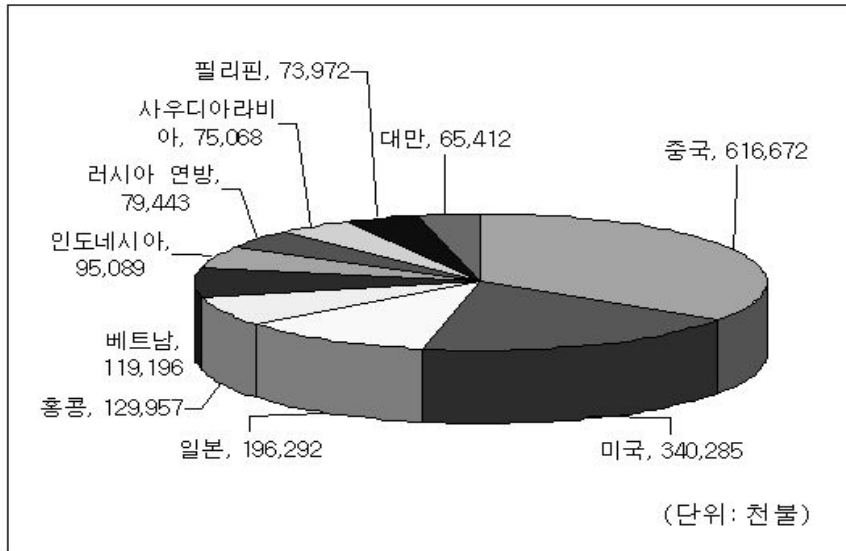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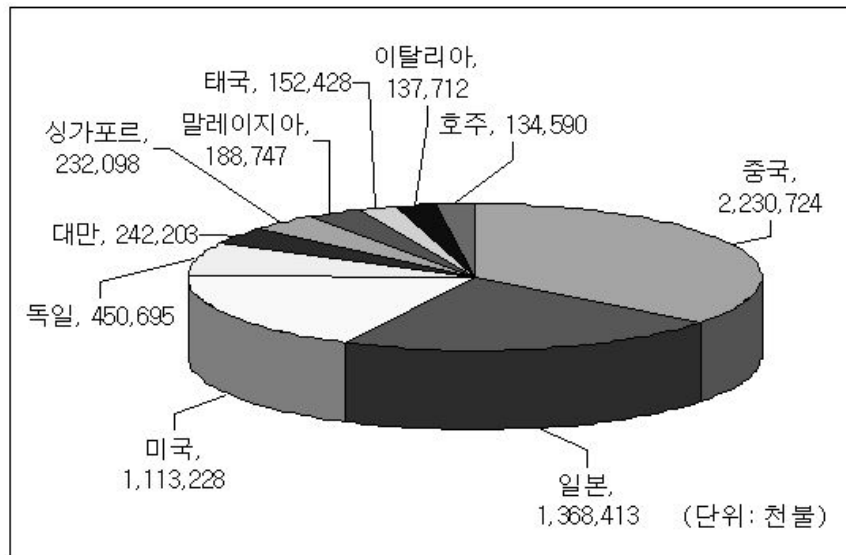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7년 9월		2008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390,018	15.5	847,165	117.2
2	컴퓨터	404,412	-4.4	458,866	13.5
3	의류	359,299	82.2	383,249	6.7
4	철강판	66,344	6.1	331,561	399.8
5	항공기및부품	80,460	-64.3	293,903	265.3
6	자동차	208,191	-7.7	232,224	11.5
7	LPG	0	-	222,607	-
8	선박해양구조물	210,600	88.4	209,664	-0.4
9	무선통신기기	118,177	-6.8	188,090	59.2
10	석유제품	85,474	-19.7	170,889	99.9
	합계	5,224,262	-2.9	8,008,509	53.3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